

그리스도인은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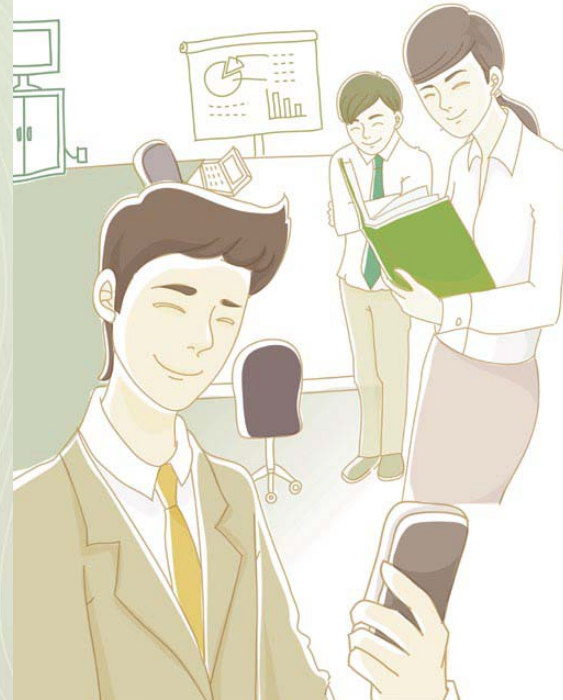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조직신학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부소장)



모든 과학 기술이 그러하듯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기술(IT Technology)에도 유익한 면과 문제점이 공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IT 기술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과학을 하는 것도, 과학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다. 지난 세기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과학과 과학 기술의 악용 사례는 1945년 원자 폭탄의 투하로 온 인류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 이후로도 과학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성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과학 기술을 가장 책임 있게 사용하고,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지침을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조차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IT 기술과 관련한 무책임한 사용 실례들을 살펴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한 사용 실례들

대표적인 예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을 독자적인 예배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는 종교적 의미의 “성도의 교제”(교회)일 수 없기 때문이다.¹⁾ 물론, 뒤에 논의하겠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 부가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교육을 도울 수는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따로 모이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결국 온전한 인격적 교제가 없으므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off-line 모임 외에 on-line으로도 교제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만 예배드린다면, on-line 모임이 추가 되고 off-line이 부가 된다면 교회의 본질적 성격에 위태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격적 교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의 적정 규모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즉,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절한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 간에도 인격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성경적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IT 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이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이버 교회가²⁾ 아직 미미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몰려가지 않는 것에 여러 모로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이런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수 있으므로 늘 주의하여야 한다.)



1)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와 성경적 교회의 의미에 대하여', 이승구, 『교회란 무엇인가, 재개정판』(서울: 나눔과 섬김, 2012); 이승구, 『성령의 위로와 교회』(서울: 이레서원, 2010)을 보라.
2) 이에 대한 논의로 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서울: SFC, 2005), 해당 부분을 보라.

IT기술을 응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 소위 “지교회”를 세워 중계하여 여러 지역의 소의 지교회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들 수 있다. (물론 이것도 IT 기술의 범주에 넣기는 애매하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사모하여 성도들이 모이겠다는 것에 무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것을 유도하여 소위 “지교회”를 세워 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은 다 합하여 하나의 교회이고, 각각의 교회 공동체들은 모두 지교회(肢教會), 즉 형제 교회들이다. 참된 교회들은 다 지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소위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인 진정한 지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잘 볼 수 있게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상은 좀 이상하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목사가 함께 하지 않는, 이를테면 중계되는 예배를 하는 일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에 익숙해지면 각자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2.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IT 기술 사용

신실한 성경적 교회들이 IT 기술을 사용하여 평소에 말씀을 복습한다든지, 더 많이,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활용 예라고 할 수 있다. IT 기술은 이처럼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좀 더 폭넓게 교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나기 어려운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공간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며, 정신이 같은 다른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을 통해 동질의 신앙을 더 튼튼히 세워 나갈 수도 있다.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당시의 모든 최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빠르게, 멀리, 폭넓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³⁾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도로 이런 일에 힘써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충분히 말씀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자기 교회를 섬기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의바른 태도(civility)와 절제(self-control)가 잘 드러나야 그것이 책임 있는 IT 기술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두 가지 덕목이 야말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드러나야 하는 기독교적인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이 쓴 글이나 댓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때로 전도의 명목으로 썼다는 글이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의 글에 대한 댓글에서 드러나는 무례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댓글 하나를 달 때에도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는 선교적인 마음(missionary mind)을 가져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의 바름(civility)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절제(self-control)할 수 있어야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은 물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자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다른 과학 기술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게 IT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3. 마치는 말

대부분의 과학 기술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중립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IT 기술 자체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또 그래야 한다. 어떤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하여 우리가 그것을 뒤따라가게 되는 것은 인간이 과학 기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어진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IT 기술을 책임 있게 이용함으로써 지표물을 제시하고, 신실하고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3) 이를 잘 강조한 예로 나의 친구 David Currie 박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보라. Cf. "The Growth of Evangelicalism in the Church of Scotland, 1793-1843" (Ph.D. thesis, University of Saint Andrews, 1990).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교회가 그 위대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